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태부족”

50년간 논문 64편 뿐...내용도 문제제기 그쳐

김순석 박사 지적

한국 불교사의 끊어진 고리,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논문이 나왔다. 화제의 논문은 김순석(독립기념관 연구원·사진) 박사의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가 9월 초 발간하는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수록된 이 논문에서 김 박사는 “해방 이후부터 1998년 말까지 발표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논문은 64편에 불과하며, 이 또한 조선후기 불교



에 대한 개괄 내지는 문제 제기만을 하고 있을 뿐, 사상·법맥·종파·사찰경제 등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조선후기 불교사상의 보고인 사기(私記)를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어 당대 불교사상 이해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스님의 신분역시 명확히 연구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천민’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 왕조의 억불정책에 대해 당대 불교계의 저항 역시 연구되지 않고, 사찰 경제의 규모와 토지 소유 형태 및 수취(收取)에 관한 부분도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조선 왕조의 억불정책으로 스님들은 온갖 잡역에 시달렸고, 종파들은 통·폐합돼, 그 수가 현저히 감소했던 조선후기의 암울한 불교사가 또다시 학자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조선후기 불교는 기층민의 생활 속에 파고든 살아있는 불교’라는 게 불교사학계의 목시적인 시각일 뿐, 정작 학자들이

당대 불교사 연구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제도권 학계와 교단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자의 부족은 경쟁 없는 연구 풍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의 첫 단계인 관련 사료 정리마저도 등한시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

김 박사는 결론에서 “조선후기 불교사는 오늘날 불교계 현실의 문제와 나아가갈 방향을 밝힐 단서”라며 제도권 학계와 교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현실도 어두워진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의 갈 바를 일러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제도권 학계와 교단의 관심이 기대된다.

■ 지금까지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해방 이후 1998년 말까지 발표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논문은 총 64편. 이 분야를 처음으로 다룬 것은 1947년 차상찬 박사의 <조선사외사(朝鮮史外史)>. 뒤이어 1959년 백성욱 박사의 <송수기법 논문집>에서 조선후기 불교사상을 고찰한 ‘조선후기

호국사상에 관하여’, ‘후사의 선풍변(禪學辨)’, ‘유불상교의 면에서 본 정다산’ 등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는 ‘이조후반기의 사찰 제지업’, ‘남북한산성 의승방비전(防備錢)에 대하여’, ‘승인호패고(僧人號牌考)’, ‘백파의 선문수경’ 등이 나와, 조선후기

사원의 역할과 신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는 조선후기 불교사 전반을 분석한 이기영의 ‘왕조 말기의 불교’를 비롯해서 백과 금선과 추사 김정희 사이에 벌어졌던 선(禪)논쟁에 관한 논문과 서산대사의 선사상을 조명한 논문 등 16편이 발표됐다. 1980년대는 20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사찰의 경제와 승계(僧契)

에 관한 연구 그리고 현 대한불교 조계종의 법통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 등 영역이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에서 지금까지는 총 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사기(私記)와 문집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스님들의 법맥과 개별 사찰의 역사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중국 강서성 우민사에서 17일 열린 한·중 선학 학술대회 모습.

표충사 내원암 도문화재 추진

제주 존자암 세존사리탑도

경남 밀양시 표충사 내원암과 제주 서귀포시 세존사리탑이 각각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밀양시와 제주시는 각각 18, 17일 도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 두 문화재를 도문화재로 지정·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목조건물인 표충사 내원암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전통건축 양식의 변천과정과 당시 선방의 구조 및 배치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내원암은 맞배지붕 건물로는 보기 드물게 그 규모가 크고 건물의

측면이 4칸이면서 3칸 기둥을 세워 난방을 위한 아궁이 설치할 고려한 게 특징이다. 또 대들보와 중중보의 크기가 같은 등 목조건물로는 보기 드문 건축양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내원암은 1695년(숙종 21년)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리탑인 존자암 세존사리탑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으며 고려말에서 조선 초로 추정되는 축조양식과 건조수법, 우리나라 전통적인 8각 원형 사리탑의 기본 양식 등을 갖추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도문화재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함께 지정 신청한 제주시 월정사 목조보살입상과 니조여래좌상(본지 283호 9면 참조)은 보존가치는 인정하지만 추가검토를 통해 차후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opia.com)

학술단신

‘화엄경금사자장’ 강좌

깨침터(대표 법해)는 황국사자를 비유로 화엄의 오묘한 세계를 설명한 현수 법장(당나라) 스님의 <화엄경금사자장> 강좌를 마련한다. 신규택(연세대·철학과) 교수가 진행할 이번 강좌는 9월 5일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화엄경금사자장>의 한문 원문 강독

과 해설로 진행된다. (02) 742-0085

불교학원 월례발표회

불교학원회(회장 해주)는 9월 2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법원승가원에서 제1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신규택(연세대) 교수는 ‘화엄교학의 관법’에 대하여 ‘법계관문’을 중심으로, 정병삼(숙명여대) 교수는 ‘의상의 화엄사상과 통일기 신라사회’로 발제에 나서며, 본각·해주 스님과 이효걸·정순일



일본인 기증 범종 시료분석 결과 “고려범종 확실”

국립문화재연구원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일본인 다카하라 히미코 씨가 99년 11월 5일 우리나라에 반환 기증한 고려범종(사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종은 시료 분석 결과 상원사 동종의 성분비와 매우 비슷해 당시 우리나라 대형 범종의 일반적인 합금비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구리와 주석, 납의 합금 성분 가운데 납의 성분비를 2% 내외로 낮게 혼합한 것으로 나타나, 주조 작업이 다소 어렵기는 해도 맑고 장엄한 소리를 내기 위한 전통적인 주조법에 따랐음을 확인했다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범종의 제작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명문은 없으나 구경과 종신고의 비율이 통일시대의 형태를 띠면서 상·하대 문양, 비천상 등의 장식문양 등은 고려시대 요소를 갖추고 있어 통일시대와 정통을 계승한 고려시대 범종임이 밝혀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범종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다르마팔라-탕카학교

탕카 제작기법 배울 기회

티베트 불교의 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불교 미술품이 곧 탕카(thangka)다. 네팔 카투만두에는 히말라야 인근 지역에서 가장 권위있는 탕카 교육 기관인 ‘다르마팔라-탕카학교(Dharmapala Center-School of Thangka Painting)’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면, 고화질 그래픽 탕카 30여 점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탕카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제작 기법까지도 배울 수 있다.

국내 불교미술의 탕화와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탕카는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이치를 담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미술품으로, 티베트 스님들이 주로 명상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탕카에는 6가지 색상 즉, 흑·남·황·적·녹·백색이 주로 사용된다. 흑색은 근원적인 에너지의 의미이고 남색은 물, 황색은 땅, 적색은 불, 녹색은 공기, 백색은 대기 밖의 영기(靈氣)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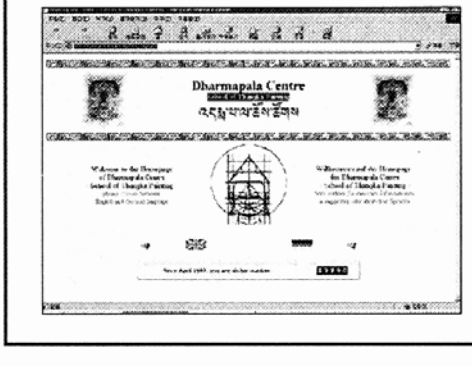
이 사이트에서 국내 불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마하칼라’, ‘마하칼라’, ‘육도운회’ 등을 관람할 수 있는데, 각 탕카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다.

△타라(tara)= ‘바다나 강을 건넌다’는 통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운회의 바다를 건너는 일을 도와주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어느 날 육세운회보살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중생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해, 이것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오른쪽 눈물에서 녹색 따라보살이 태어나고 왼쪽 눈물에서 백색 따라보살이 태어났다고 한다. 미간과 양안 발바닥에 7개의 눈이 있다는 백색 따라보살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마하칼라(Mahakala)=관세음보살이 사악한 중생을 제도할 때 나타내는 관음의 분노존이며, 원두교에서 파파의 신(神)인 시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칼라(kala)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모든 것을 죽여주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라고 불린다. 마하칼라는 불교의 호법신에 편입되면서 삼보를 수호하고 굶주리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알려졌다. 탕카에서 마하칼라는 분노의 얼굴에 해골 목걸이를 두르고 시바의 아들 가네쉬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시도도=생명의 수레바퀴를 나타낸 탕카가 ‘육도운회도’다. 생명의 바퀴로 불리는 이 그림의 중심에는 수환과 독사 그리고 돼지가 뒤엉켜 있는데, 운회하는 세 가지 힘의 원천인 탐욕, 성냄, 무지를 상징한다. 두번째 원의 오른쪽은 나쁜 과보를 받는 모습이고 왼쪽은 선지식의 인도로 아미타불 정토에 태어남을 상징한다. 세번째 큰 원은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천상, 인간, 아귀, 지옥, 축생, 아수라 등 여섯 갈래의 윤회세계가 그려져 있다. 네 번째 원의 12개 그림은 12연기를 상징한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해’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간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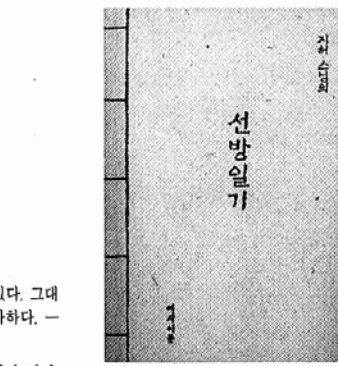
“결단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때로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엮은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편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자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절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해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 아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핵심의 묘리를 본다.
이재철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월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 값 4,000원
 -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법)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법)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법)
한글 새해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영조 지음 / B6 변형 334쪽 / 값 6,000원
 -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 B6 변형 282쪽 / 값 5,000원
 -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학·학술)
모든 중생엔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학·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친상현하유아독’
김중서 지음 / B6 변형 182쪽 / 값 4,500원